

2026 밀알의밤 “따뜻한 동행”: 간미연 & 황바울 부부 이야기



1997 년, 열다섯 살의 소녀 '간미연'은 놀이공원에서의 우연한 캐스팅으로 5 인조 걸그룹 '베이비복스'의 메인보컬로 데뷔했다. 'Ya Ya Ya', 'Get Up', '우연' 등 발표하는 곡마다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국내는 물론 중국과 동남아시아까지 1 세대 한류 열풍을 이끈 그녀의 삶은, 세상이 보기에 더없이 눈부셨다.

그러나 그 빛나는 무대 뒤편에는 짙고 가혹한 상처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일부 안티팬들의 도를 넘은 무자비한 공격은 어린 10 대 소녀가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현실이었다. 무대 위에서는 팬들을 향해 웃어야 했지만, 무대 아래의 삶은 불안과 좌절로 얼룩졌다. 세상이 쏟아붓는 갈채와 인기는 그 깊은 내면의 상처를 조금도 치유해 주지 못했다. 2006 년 베이비복스 해체 이후 간미연은 솔로 가수와 뮤지컬 배우로 곳곳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지만, 트라우마와 대인기피증의 그늘은 오랫동안 그녀의 영혼을 짓눌렀다.

그런 그녀의 삶에 마침내 은혜의 빛이 스며든 것은, 2019 년 뮤지컬 배우 '황바울'과의 결혼을 통해서였다. 황바울은 간미연보다 3 세 연하인 1985 년생으로, 지난 2006 년 방송 데뷔 이후 다수의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큰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는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을 겸비한 실력파 뮤지컬 배우로 활약하고 있다. 모태신앙의 독실한 크리스천인 황바울은 상처 입은 아내에게 결코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조건 없는 사랑을 삶으로 묵묵히 보여주었다. 간미연은 바로 그러한 남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변화는 기적 같았다.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었던 트라우마의 사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풀려나갔고, 세상의 어떤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던 텅 빈 마음이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제 두 사람은 매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다. 간미연은 간증 집회와 기독교 방송, 뮤지컬 무대와 신안산대학교 교수직을 통해 자신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놀이공원에서의 그 우연한 만남도, 깊은 상처의 터널도, 그리고 사랑으로 아내를 일으켜 세운 남편과의 만남도 모두 하나님의 치밀하고 놀라운 섭리였다. 이번 밀알의밤 무대에서 이들 부부의 감동적인 공연과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이민생활의 무게에 지친 교포들의 마음에 한줄기 따뜻한 소망과 위로로 전해지길 기대한다.